

황재균 연타석 홈런...대회 첫 7회 콜드승



12일 대만 타이베이 구장에서 열린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회 조별예선 B조 3차전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의 경기에서 4회말 황재균이 선두타자로 나와 좌월 솔로홈런을 친 뒤 그라운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야구대표팀, 베네수엘라 13-2 제압 '2연승'...내일 멕시코와 4차전



WBSC 프리미어12

한국이 이를 연속 화력을 펼치며 '프리미어 12' 첫 콜드게임을 장식했다. 세계 랭킹 8위의 한국 야구대표팀이 12일 대만 타이베이구장에서 열린 2015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조별예선 B조 3차전 베네수엘라(세계 10위)와의 경기에서 13-2, 7회 콜드승을 거뒀다. 3루수로 선발 출장한 황재균이 연타석 홈런을 터트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날 이대호의 역전 투런포를 앞세워 10-1 대승을 거뒀던 한국은 정규이닝을 채울 필요도 없이 7회 경기를 일찍 끝냈다. 이번 대회의 첫 콜드게임. 준결승-결승을 제외한 경기에는 5회 이후 15점 이상, 7회 이후 10점 이상 점수 차가 벌어지면 콜드게임이 선언된다. 탈수 증세를 보인 이용규와 전날 경기에

서 원 발등에 공을 맞은 민병현을 빼고 정근우(2루수)-손아섭(우익수)-김현수(좌익수)-이대호(지명타자)-박병호(1루수)-나성범(중견수)-황재균(3루수)-강민호(포수)-김재호(유격수)의 라인업이 구성됐다. 처음 태극 마크를 단 이대호는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다. 1회부터 한국의 공세가 펼쳐졌다. 선두타자로 나온 정근우의 중전안타에 이어 손아섭의 번트가 안타로 나오면서 무사 1:2 루가 됐다. 3번 타자 김현수가 우중간 펜스를 때리는 타구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대호의 중견수 플라이로 1사 3루. 나성범의 볼넷에 이어 황재균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3-0이 됐다. 베네수엘라의 선발 모나스테리오는 1이닝도 버티지 못하고 까레노와 교체됐다. 3-0으로 앞선 3회 이대호가 선두타자 아포다카와의 승부에서 좌월 솔로포를 허용했다. 라다에타의 좌전 안타에 이어 최성민이 홈런을 터뜨리며 4-0으로 앞섰다. 이대호는 5이닝 6피안타(1피홈런) 1볼넷 6탈삼진 2실점으로 물러난 뒤 우규민이 6회를 2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그리고 7회 이대호가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일찍 경기를 마무리했다. 불발은 타격으로 일본전 영봉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2연승에 성공한 한국은 14일 오후 7시 타이베이 티엔무구장에서 세계 12위 멕시코와 4차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애인·비장애인 광주서 함께 달린다

내일 전국 어울림 사이클 대회...월드컵경기장

자전거로 장애를 허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무대가 마련된다. '2015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어울림 사이클 대회'가 13일과 14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 휠체어사이클동호인들과 비장애인 사이클동호인 등 500여 명(참가 선수 350명, 운영요원 150명 등)이 참가한다. 휠체어사이클 동호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축제의 자리다.

13일에는 코스 설명과 답사가 진행된 다. 14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오전 10시 경기가 시작된다. 4.5km 부문에는 장애인휠체어사이클 동호인과 비장애인들이 참가하며, 16km 부문에서는 장애인핸드사이클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벌이게 된다. 각 부문 우승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한국장애인사이클대표팀의 간판 스타인 이도연·김용기·이승미도 출전해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한다. 한편 대회가 열리는 14일에는 월드컵경기장, 영주체육관, 원광대한방병원, 풍암저수지, 풍암 119안전센터, 서구문화센터, 풍암사거리, 송촌아파트 등 일부 구간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진다. 세부질서는 "18일 오전 09시30분~11시30분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8km구간에서 사이클대회가 진행되면서 주요 차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김지율기자 dok2000@

롯데, 16일 손아섭 ML 포스팅 요청

롯데 자이언츠가 외야수 손아섭(27)의 메이저리그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출발점을 11월 16일로 정했다. 롯데는 12일 "손아섭 선수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참가를 위해 16일 KBO에 공시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아섭은 2015시즌 종료 뒤 롯데에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를 밝혔다. 팀 선배 황재균(28)도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해 둘 사이에 교통정리가 필요했다. KBO는 각 구단에서 1년에 1명의 해외 진출을 허용한다. 포스팅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롯데는 손아섭에게 먼저 포스팅 기회를 주기로 했고 16일 KBO에 포스팅 공시 요청을 한다. 롯데는 "절차에 따라 20일까지 메이저리그 구단이 사무국에 포스팅 금액을 제시할 것이고, 21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KBO에 최고 응찰액을 통보할 예정이다. 롯데는 26일까지 KBO에 최고 응찰액 수용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퇴장

'PS 최고령 승리투수' NC 손민한 은퇴

NC 다이노스의 베테랑 투수 손민한(40)과 이해찬(36)이 은퇴를 결단했다. 마지막 시즌까지 의미 있는 투구를 하고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모습이다. 손민한과 이해찬은 12일 NC 구단을 통해 "이번 시즌을 끝으로 한국 프로야구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손민한은 NC의 일원으로서 유소년 야구육성에 관한 일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해찬은 호주프로리그(ABL) 소속 애들레이드 화이트에서 야구 선수 생활을 이어나간다.



1997년 프로 데뷔한 손민한은 통산 388경기 1743.1이닝 123승 88패 22세이브에 평균자책점 3.55를 기록했다. NC에는 2013년 신고선수로 입단해 5승 6패 9세이브 평균자책점 3.43으로 부활에 성공했고, 올해 선발투수로 활약하며 11승 6패 평균자책점 4.89로 맹활약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넥센전에서 시즌 10승째를 달성, 한국 프로야구 최고령(40세 8개월 9일) 두자릿수 승리투수 기록을 썼다. 지난달 21일 두산과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는 40세 9개월 19일의 나이로 포스트시즌 최고령 선발출장과 승리투수를 동시에 달성했다. 1998년 데뷔한 이해찬은 통산 706경기 1019.1이닝 56승 48패 7세이브 평균자책점 4.42를 기록했다. NC에는 2014년 2차 드래프트로 합류해 2시즌 동안 54경기 1승 5홀드 평균자책점 4.08을 찍었다. 그는 지난달 24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플레이오프 5차전 8회에 등판하며 포스트시즌 통산 최다경기(46경기)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연합뉴스

조용한 귀국

류현진 '5월 복귀' 위해 국내 재할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14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 류현진의 국내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에이스팩코퍼레이션은 12일 "류현진이 국내 재활 훈련과정을 밟고자 14일 귀국한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5월 22일 어깨 수술을 받았고 '내년 5월 메이저리그 복귀'를 목표로 재활을 진행 중이다. 올 시즌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류현진은 조용히 귀국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한국에서도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NH농협은행 청년회합펀드 기부금 전달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고, 11월 9일 전국 유소년 야구 꿈나무 후원 류현진 재단 자선콘서트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에이스팩코퍼레이션은 "류현진이 10월 7일 첫 캐치볼 훈련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저스도 담당 트레이너를 한국으로 보내 류현진의 재활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에이스팩코퍼레이션은 12일 류현진의 재활 훈련 장면을 공개하고 "류현진은 6월 식단조절을 동반한 사이클, 러닝 훈련을 시작했고 현재는 캐치볼을 하고 데드프리트 등으로 재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말 열심히 훈련한다"며 "현재까지 성과는 좋다. 수개월간 재활에 힘썼고 앞으로도 재활을 소화할 류현진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